

“요즘 상가, 돈 안되고 텅 비었어요”

건물 매매가격 상승·자영업 침체 영향
광주 공실률 높아지고 임대 수익률 ‘뚝’
“실물경기 살아나지 않는 한 악화 지속”

지난 11일 찾은 광주의 대표적인 상권인 동구 구시정 4거리. 밤만 되면 젊은이들로 활기가 넘쳤지만, 최근 경기침체와 자영업 위기 등의 영향으로 건물 곳곳이 비어 있다. 이 곳은 대부분 식당과 술집 등으로 채워져 있는데, 2층과 3층은 물론이고 1층도 세입자를 찾는 ‘상가 임대’라는 플래카드를 만날 수 있다. 상가 주인 김모씨는 “경기불황이 계속되고 있는데다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안돼 세입자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와 같다”며 “은

행에서 몇억원을 대출받았는데, 요즘에는 대출이자 갚기도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상가 건물 매매가격 상승과 자영업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빈 상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상가 임대수익률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12일 수익률부동산전문기업 상가정보연구소가 한국감정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중대형 상가의 연 수익률은 4.19%로 전년(4.35%) 보다 0.16% 포인트 하락했다.

소규모 상가의 연 수익률도 3.73%로 전년(3.91%) 보다 0.18%포인트 떨어졌다. 17개 시·도 가운데 전년 대비 수익률이 상승한 지역은 대전이 유일했다. 중대형 상가가 3.99%에서 4.11%로 0.12%포인트, 소규모 상가가 3.5%에서 3.53%로 0.03%포인트 상승했다. 중대형 상가의 수익률은 충북(5.16%), 인천(5.12%), 경기(4.97%)·광주(4.97%), 강원(4.65%) 등의 순으로 높게 집계됐다. 소규모 상가의 경우 광주(4.76%), 충북(4.58%), 전남(4.46%), 충남(4.38%), 인천(4.34%) 등의 순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광주와 전남지역 상가 수익률은 전년에 비해 떨어졌다. 광주지역 중대형 상가 수익률은 5.12%에서 4.97%로 0.15% 포인트, 소규모 상가 수익률은 4.97%에서 4.76%로 0.21% 포인트 하락했다.

전남 중대형 상가 수익률도 4.65%에서 4.58%로 0.07% 포인트, 소규모 상가 수익률은 4.62%에서 4.46%로 0.16% 포인트 떨어졌다. 지역 상가 공실률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2018년 연간 전국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 중대형 상가와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각각 12.2%와 4.3%로 연초 보다 증가했다. 전남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3.8%로 연초 보다 증가했지만,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6.8%로 연초보다 하락했다. 상가정보연구소 이상혁 선임연구원은 “상가 매매가격 상승과 자영업 경기 불황 등 영향으로 상가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됐다”며 “실물경기 및 상가 임차수가 살아나지 않는 한 당분간 수익률 악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석호기자 haिता2000@srb.co.kr

■지역별 상가 임대수익률 (단위 %)

지역	중대형 상가		소규모 상가	
	2017년	2018년	2017년	2018년
전체	4.35	4.19	3.91	3.73
서울	3.94	3.8	3.18	2.99
부산	3.96	3.9	3.58	3.24
대구	4.26	3.99	3.18	3.15
인천	5.37	5.12	4.54	4.34
광주	5.12	4.97	4.97	4.76
대전	3.99	4.11	3.5	3.53
울산	4.16	3.87	3.04	2.89
세종	3.39	4.17	4.32	3.48
경기	5.22	4.97	4.07	3.88
강원	4.79	4.65	4.49	4.27
충북	5.36	5.16	4.84	4.48
충남	3.99	3.92	4.45	4.38
전북	4.69	4.43	4.06	3.88
전남	4.65	4.58	4.62	4.46
경북	4.02	3.78	3.94	3.75
경남	3.85	3.76	3.62	3.57
제주	3.75	3.65	3.1	2.92



상가 건물 매매가격 상승과 자영업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빈 상가가 늘고 있는 가운데 12일 광주지역 한 상가건물에 임대문의 안내문이 붙여있었다. 임영욱기자 jo5605@srb.co.kr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 시동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부지 이전 계획 수립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된다. 공장 이전의 뼈대가 될 용역 발주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여 공장부지 자산 가치 평가와 활용 방안 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광주공장 부지 도시계획 변경과 공장이전’을 위해 지난 달 16일 업무 협약을 체결한 미래셋대우와 본격적인 용역사 선정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이번 용역은 금호타이어가 광주시, 광주 광산구와 향후 광주공장 이전과 부지 개발

방식을 놓고 진행하게 될 협의에 필요한 회사 측 계획 수립을 위한 것이다. 금호타이어는 미래셋대우와 업무 협의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전문 용역사 선정에 마치고 관련 용역발주와 함께 본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용역안은 최소 3가지 모델안으로 수립될 전망이다. 39만6천694㎡(12만여평)에 달하는 광주공장 부지에 대한 개발가치를 포함한 자산평가와 이전 장·단점 분석 등에 초점이 맞춰진다. 용역안이 확정되면 광주시, 광주 광산구

미래셋대우와 용역사 선정 등 협의 절차

와 공장이전을 위한 본격적인 협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앞서 광주 광산구도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부지 이전에 대비해 송정역세권 발전안을 포함한 용역을 지난해 11월29일 발주했다. (사)한국도시계획학회와 진행 중인 ‘광주 송정역세권 발전방향 수립용역’은 오는 3월2일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금호타이어와 광주 광산구가 발주한 용역안 수립이 완료되더라도 실제 공장 이전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광주공장 이전 이후 부지를 민간투자

방식으로 개발할지,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할지도 남은 과제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과 인접한 광주송정역 일대는 광주시와 광산구가 ‘지역경제 거점형 KTX투자선도지구’로 개발할 계획인 가운데 투자 가치가 높은 부지로 주목 받고 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향후 지자체와 진행될 협의는 완료 예정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공장 이전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윤주기자 ly2001@srb.co.kr



12일 2019년 무재해 목표달성 결의대회에서 박래석 KIA차 광주공장장(사진 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안전 구호를 외치며 카드섹션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기아차 제공

“재해 없는 안전사업장 만들겠습니다”

기아차 광주공장, 2019년 무재해 목표달성 결의대회

“오늘 하루 ‘안전’ 하십니까?”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은 12일 현장 안전 의식 고취를 통해 2019년 재해 없는 광주공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무재해 목표달성 결의대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박래석 기아차 광주공장장을 비롯한 임원, 부서장, 그룹장 등 관리감독자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무재해 안전사업장 구현하고 재해목표를 달성할 것을 다짐했다. 구체적인 실천사항으로는 ▲한마음 한뜻으로 안전 기본수칙을 준수하며 중대재해 예방 ▲작업장내 잠재위험 발굴해 안전 사고 예방활동도 양강 ▲나의 건강이 가족과 회사의 버팀목임을 항상 인식하고 관리 ▲원하청 공생 협력을 통해 6대 핵심 안전수칙 준수 ▲선제적 환경설비 구축 통한 친환경 사업장 조성에 적극 동참 ▲노사신뢰 바탕 최고 안전한 광주공장 구축에 적극 앞장 등 6가지 항목에 대해 결의하고, 전 임직원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이날 결의대회를 바탕으로 전 임직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소공장별로 무재해 목표달성 결의문을 게시하고, 부서별로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통해 안전 결의문을 확대 전파해 나갈 계획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안전은 수백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중요한 문제로 광주공장의 모든 임직원들이 안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함께 안전한 광주공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결의대회를 실시하게 됐다”며 “금일 결의대회를 기점으로 현장에서부터 안전마인드 확립을 통해 재해 없는 광주공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윤주기자 ly2001@srb.co.kr

기아차, iF 디자인상 수상

프로씨드 등 3개 차종 제품 부문



기아차가 세계 최고 수준의 디자인 경쟁력을 다시 한 번 인정받았다. 기아자동차는 ‘프로씨드’, ‘씨드 해치백’, ‘씨드 스포츠에디션’이 독일 국제포럼디자인(International Forum Design)이 주관하는 ‘2019 iF 디자인상(International Forum Design Award)’의 제품 디자인(Product design) 부문 수상 디자인(Automobiles/Vehicles) 분야에서 각각 분상(Winner)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레드닷, IDEA 디자인상과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로 평가 받고 있는 iF 디자인상은 독일 국제포럼디자인(International Forum Design, 1953년 설립)이 주관하며 1954년부터 매년 제품, 포장, 커뮤니케이션 등 7개 부문으로 나눠 각 부문별 수상자들을 발표하고 있다.

이중 제품 디자인 부문은 다시 수송, 레저용품, 컴퓨터, 조명, 가구 등의 세부 분야로 나뉘어 디자인, 소재, 혁신성, 환경 친화성, 브랜드 가치 등 제품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중심으로 매년 수상자들이 발표되고 있다. 올해는 총 6천375개의 출품작 중 66개가 금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기아차는 지난 2010년 유럽 전락 차종 벤치가 처음 수상한 이후 10년 연속 iF 디자인상을 석권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디자인 경쟁력을 입증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디자인 상 중 하나인 iF 디자인상에서 수상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검증된 디자인 경쟁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시장 공략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주기자 ly2001@srb.co.kr

광주 최대 변화가! 최고 광고효과!

광주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전광판 광고 (신세계안과 옥탑)

DISPLAY 광고문의
신세계안과, 1666-9988

밝은광주안과의 새이름
신세계안과
SHINSEGAE

01
광주 최고 유동인구 밀집지역

신세계백화점, U-Square, 광주종합버스터미널, e마트 등

02
광주 최대 광복대로에 위치

20차선 차량 정체 극심 지역, 57개 버스노선 경유지(광주 최대)

03
무등일보, 뉴시스 뉴스와 생활정보 편성, 높은 주목도!

04
두 개 (무진대로, 죽병대로) 광복대로에 노출되는 광고효과 X2

1일 100회, 월 3,000회 노출!! (20초 광고 기준)

- ▶ 스크린 크기: 13.6m x 7.7m
- ▶ 해상도: LED풀컬러 국내 최고 화질
- ▶ 하루 18시간, 20구좌상업 광고노출
- ▶ 광고노출 시점: 계약 즉시 가능

믿을 수 있는 그룹의 No.1 광고회사

SRB **SRB 에드** 문의 062) **510-4650**